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미국증시, 유가 상승에도 반도체주 중심 반등

- 미국증시 4거래일만에 일제히 반등
- 미국-이란 긴장 여전, 유가·금리 ↑
- 반도체주 초강세..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21%

### Summary

#### 미국증시 4거래일만에 반등

7월 21일 화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4거래일만에 반등함.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확대되는 흐름이고 이에 국제유가는 한 달여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제 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 하지만 견조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반도체주 위주의 투자심리 개선이 이루어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74% 상승한 52,224.64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89% 상승한 7,509.20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1.29% 상승한 25,837.21에 마감. 나스닥 100 지수는 1.93%, 강하게 상승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 2천 지수 역시 1.53% 상승으로 거래를 마침. 변동성 지수 VIX는 8.58% 하락, 17.05에 거래를 마침.

(다우 +0.74%/ S&P500 +0.89%/ 나스닥 +1.29%/ 러셀2000 +1.53%)

섹터별로는 IT 섹터가 2.35%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에너지가 1.15%, 헬스케어 0.64% 각각 상승함.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지만 필수 소비재 섹터는 1.01% 하락했고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등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 업종도 0.85% 하락 마감함.

####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유가·금리·달러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확장되는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레바논 대령과 회담을 전후로 다양한 언급들을 내놓았는데,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공식적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함. 이는 이날까지 열흘째 이어진 대 이란 공습 등 군사적 압박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으며 실제 그는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전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고 실제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싣고 홍해를 지나려던 유조선 4척이 후티 측의 공세에 회항하기도 했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홍해가 후티에 의해 막힌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아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에 대해 조만간 강력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한편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내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등의 피해가 보고됨. 나아가 이란 중앙사령부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

란군의 대규모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물밑 협상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움직임도 중재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날 국제유가는 2%대 상승으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선을 5주만에 재차 돌파.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 국채 금리와 달러 상승 요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주식 시장 내에서의 상승 분위기는 훼손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자산군별 차별적 반영이 두드러졌음.

한편 이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CEO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지정학적, 재정적 위협에 대해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미중간 긴장과 막대한 재정적자 가운데 군비 증가 등의 이슈들을 감안할 때 현재 가격에서 주식이나 미 국채 장기물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반도체주 급반등: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21%

유가와 금리, 달러의 동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유지한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 최근 중국 AI 개발사 '문샷'이 공개한 'Kimi K3'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층위의 AI 모델 등장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져 AI 인프라, 다시 말해 메모리/스토리지, 서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해석과 함께 반도체주가 장 중 내내 강한 반등세를 유지함.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 AI 개발사의 AI 모델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오히려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밸류체인 내 종목들에게는 수요 확대 요인으로 긍정적이라는 시각.

다만 이 같은 서사는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AI 모델 개발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실제 이 날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약세.

한편 현지시각 22일 장 마감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AI 인프라 투자 대비 수익성과 Capex 규모에 따라 반도체주 등의 AI 테마 내 종목군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

## 특징종목

### 반도체 강세, 빅테크 하락

전일과 달리 이날은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시장 반등을 견인. 지난주 낙폭이 컸던 이들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입됐으며 AI 서버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대됨. 지난주 중국 AI 개발사 문샷의 'Kimi K3' 공개로 AI 인프라 투자 내러티브 약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던 이들 종목은 다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려 다양한 세그먼트의 AI 모델 출시와 그로 인한 전반적 사용량 증가, 또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 강화 등은 메모리/스토리지, 서버 등의 수요를 강화하는 요인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며 상승. 알파벳(-1.38%)를 앞두고 견조한 Capex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당 섹터 상승세에 힘을 실음.

마이크로테크놀로지(+12.17%), AMD(+8.11%), 인텔(+8.64%), 마벨 테크놀로지(+6.64%), 샌디스크(+14.23%), 웨스턴 디지털(+12.4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1.06%), 엔비디아(+1.90%), 브로드컴(+2.11%),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7.39%), 램 리서치(+4.97%), KLA(+4.75%), 델 테크놀로지스(+5.83%),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7.01%), 온 세미콘덕터(+5.03%) 등 S&P500 반도체 섹터 내 전 종목이 상승했으며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21% 급등. SK하이닉스 ADR(SKHY)도 13.75% 급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SMH(+4.52%), SOXX(+5.45%), SOXQ(+5.20%), FTXL(+5.94%), DRAM(+10.91%), DISK(+11.87%) 등의 관련 ETF도 큰 폭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2.17%)는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급등.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중국 AI 모델이 장기적인 AI 메모리 수요를 강화한다며 목표주가 1,550달러를 유지.

이날 엔비디아(+1.97%)는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힘.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 NVL72’ AI 랙이 구글(-1.38%)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1.13%) 애저, 오라클(+4.67%) 클라우드와 코어위브(+8.92%) 등에 공급돼 현재 가동 중이라고 밝힘. 이 베라 루빈은 전작인 그레이스 블랙웰 대비 메가와트 당 성능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액체 냉각 유입 설계 등을 통해 메가와트 당 연간 수백만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이전 세대 대비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남.

앞서 전일 AMD(+8.11%)가 베라 루빈에 대응하는 AI랙 헬리오스를 마이크로소프트(-1.13%)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엔비디아(+1.97%)의 주요 고객사였던 오픈AI와 메타(-0.32%)도 최근 자체 AI 칩을 내놨고 엔트로픽도 자체 칩 개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음. CPU 시장에서도 인텔(+8.64%), AMD(+8.11%)의 추격에 직면. 이에 엔비디아(+1.97%)는 타사 대비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성능 면에서 적극 내세우고 있음.

한편 엔비디아(+1.97%)는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차세대 이더넷 플랫폼 ‘스펙트럼-6’를 공개. 회사는 코어위브(+8.92%)와 마이크로소프트(-1.13%), 네비우스(+18.78%)와 스페이스XAI, 테슬라(+2.53%) 등의 AI 인프라 구축 기업들이 AI 팩토리 가속화를 위해 ‘스펙트럼-6’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대만 파운드리 TSMC(+5.55%)는 내년 칩 제조 서비스 가격을 최대 1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닛케이 아시아 보도가 있었고,

인텔(+8.64%)은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 부문의 추가 감원 계획을 확인. 인텔(+8.64%)은

더 집중력 있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 그룹의 조직을 재정비해 사업의 장기적 성공에 필요한 역할과 역량을 갖추 계획이라고 밝힘. 회사는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을 지속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28일 기준 직원수는 약 8만 3,200명으로 정점이었던 2022년의 13만명 대비 크게 축소됨.

AI 서버 제조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7.01%)는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총 마진 전망을 대폭 상향하고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공개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상승.

이날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18.78%)는 엔비디아(+1.97%)가 이 회사 지분 9.3%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린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코어워브(+8.92%)와 IREN(+2.71%) 등도 동반 상승.

이외 코히어런트(+11.15%), 코닝(+6.08%), 루멘텀 홀딩스(+9.41%) 등의 광전자, 광통신 관련 기업들도 지난주 급락분을 대체로 만회.

다만 최근 반도체와 빅테크 간 상호 보완적 공급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주로 쏠린 수급은 빅테크 기업들에 상대적 약세 요인. AI 모델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이들 종목의 상대적 약세로 이어짐.

22일 장 마감 후로 예정된 알파벳(-1.38%)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 평균 5.4% 움직일 가능성을 반영 중.

### 테마주 강세: 양자, 우주, 암호화폐 등

전반적 투자심리 개선은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대표 테마 종목군의 상승으로 이어짐.

양자 컴퓨팅 관련 대표 종목 아이온큐(+3.71%)가 5거래일만에 반등했고, 쉼 컴퓨팅(+3.79%), 디 웨이브 쉼(+6.46%), 인플렉션(+9.28%), 쉼티늄(+2.14%) 등이 동반 상승.

무려 8거래일만에 반등한 스페이스X(+3.08%)를 비롯해 우주 산업 관련주도 동반 강세. AST 스페이스 모바일(+10.31%), 레드와이어(+9.53%),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7.32%).

투자심리 개선과 clarity 액트 통과 기대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6만 6천 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서클 인터넷 그룹(+8.60%), 코인베이스 글로벌(+9.61%), 로빈훗 마케츠(+7.13%), 마라 홀딩스(+4.97%), 스트래티지(+4.22%) 등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 이외 특징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0.46%)는 미국 일라이 릴리(+2.49%)를 상대로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노보는 릴리가 자체 비만 치료제 젼바운드를 광고하면서 약효를 보다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노보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현재 시판 용량보다 낮은 용량을 기준으로 왜곡된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했다며 허위광고 및 불공정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2.88%),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 상회. 연간 가이드스 다시 확인하며 달성 가능한 궤도 위에 있다고 밝힘. 제너럴 모터스(+4.91%)와 3M(+7.32%),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연간 가이드스 상향에 강세. 완구업체 해즈브로(+8.81%)도 디지털 게임 사업의 견조한 수요와 '매직 더 개더링'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어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를 상향한 가운데 주가가 이에 반응해 급등.

다만 생명 과학 장비 제조업체 다나허(-10.99%)는 연간 매출 성장 전망을 하향, 전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급락.

블룸에너지(+14.82%)는 JP모건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 등에 힘입어 급등.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브렌트유 90달러 돌파

국제유가는 이란이 미국에 열흘간의 휴전을 제안했다는 이스라엘 신문의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란과의 대화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는데다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의 항행이 막힌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하 핵시설 공습에 대해 경고한 점 등이 맞물려 상승.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26% 상승한 배럴당 84.3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9월물은 2.57% 상승한 배럴당 91.01달러에 마감,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해 5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국제 금 가격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와 그를 반영한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4,000달러 선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51% 상승한 트로이 온스 당 4,076.40달러를 기록. 은가격 역시 3.57% 상승, 온스당 60달러선에 육박.

###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단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 다음주 FOMC를 앞두고 전황 악화와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상승. 전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한 달여만에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날도 추가 상승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2년물 국채 금리는 5.5bp 상승한 4.2615%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6bp 상승한 4.6281%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1.9bp 상승한 5.1312%를 기록.

10년물은 장 중 4.6% 중반대까지 올라 지난 5월 하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0년물 금리 역시 5.1% 중반대까지 상승해 약 2달만의 최고치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주로 예정된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24% 내외로 전장 10% 중반대에서 비교적 크게 높여 반영. 오는 9월 회의에서 인상할 가능성도 60% 후반대로 역시 전장 대비 상승.

#### 달러 이틀째 강세..달러-엔, 163엔 돌파

미국 달러화 가치는 2거래일 연속 상승.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낮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전일 사우디에 대한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선언이 있었던 가운데 실제 사우디 산 원유 적재 유조선 4척이 홍해에서 회항했다는 소식 등이 결국 유가를 매개로 달러 강세로 이어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25% 상승한 101.203을 기록.

한편 달러-엔 환율은 163엔선을 돌파. 장 중 163.213엔까지 상승폭을 확대(엔화 약세 폭 확대). 달러-엔 환율이 163엔선을 넘어선건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9년 8개월만의, 그러니까 약 40여년만의 일. 일본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는 움직임과 달러 강세 요인,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엿새 연속 하락하며 1,473.4원에 마감, 2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80원)를 감안시 9.40원 상승한 1,482.00원을 기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